

威脅的 訴求의 效果와 逆效果에 관한 小考

—우리나라 對民弘報의 事例를 中心으로—

車 培 根

目 次

I. 序 論	果分析
A. 問題의 提起	B. 社會構造上에서 본 威脅的 訴求의 效果
B. 研究目的과 問題	1. 外的 威脅과 內的 結束과의 相關關係
C. 研究方法과 制限點	2. 韓國社會의 構造와 威脅的 訴求弘報의 效果分析
II. 本 論	III. 結 論
A. 心理學上에서 본 威脅的 訴求의 效果	A. 研究結果의 要約 및 結論
1. 威脅的 訴求의 概念과 原理	B. 他研究와 弘報政策을 위한 提言
2. 威脅的 訴求의 效果에 대한 諸研究 結果	
3. 北傀의 威脅에 대한 對民弘報의 效	

I. 序 論

A. 問題의 提起

國民의 總和團結을 위한 對國民 弘報方案의 하나로서 과거에 政府는 北傀의 威脅에 呼訴하는 說得方法(fear appeal 또는 threat appeal)을 즐겨 使用해 왔다. 그러나 1975년에 들어와서 이러한 弘報方法이 效果 보다는 逆效果를 나타내고 있다는 批判이 國內外에서 일어났다. 예컨대 評價教授團의 1974年度 評價報告書에서도 北傀의 威脅을 主張하는 政府의 弘報方案이 國民들로 하여금 지나친 戰爭恐怖症을 誘發하여 國民意識의 發展의 展開를 沮害하고 나아가서는 逃避性向마저 助張하는 結果를 가져왔다고 指摘하였다.¹⁾

또한 前駐韓 UN軍 司令官「본스틸」將軍도 北傀의 威脅에 對備하라는 韓國政府의 對國民 弘報가 國民들에게 過大評價되어 國民들을 不安感이나 恐怖意識으로 몰아넣게 된다면 그것

* 本小考는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주최 1976년 夏季特別 세미나 (主題: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國家發展」)에서 “弘報理論上에서 본 對民弘報의 몇가지 問題點”이라는 題目으로 발표하였던 論文의 일부를 補完한 것임.

1) 東亞日報, 1975. 3. 25(4面).

은 北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結果밖에 되지 않는다고 憂慮한 바 있다²⁾

한편 1975년 3月 30日字 「뉴욕 타임스」에 掲載된 「리차드·헬로란」의 글에서도 “北韓의 軍事的 威脅을 過大하게 主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韓國政府의 公信력이 크게 損傷되었다”고³⁾ 報道한 바 있다.

以上の 批判들은 어디까지나 北傀의 威脅을 잘못 認識하고 그것을 過小評價하기 위한 것 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만약 많은 國民들이 實際로 戰爭恐怖病이나 敗北感에 사로 잡혀서 北傀의 威脅에 對備하는 것과는 反對로 逃避性向을 띠고 있다면, 지금까지 國民總和를 위하여 北傀의 威脅에만 呼訴해오던 政府의 對國民弘報方法은 弘報戰略上 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B. 研究目的과 問題

따라서 本小考에서는 만약 國民의 內的 總和團結을 위하여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呼訴하 였던 政府의 對國民弘報方法 즉 威脅의 訴求方法(threat appeal)이 과연 效果보다는 逆效果 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理由는 무엇때문이었나를 커뮤니케이션學 및 社會學的 理論에 비추어 分析, 考察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本小考에서는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커 뮤니케이션理論 및 社會心理學的 理論에 비추어서 分析해 보므로써 威脅의 訴求의 效果의 限界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① 만약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호소하였던 우리 政府의 과거의 對國民弘報方法 즉 威脅의 訴求方 法(threat appeal)이 效果 보다는 逆效果를 가져왔다면, 그 原因은 무엇 때문이었나?

② 威脅의 訴求의 效果의 限界성은 어떠한가, 어떤 경우에 效果 또는 逆效果를 가져오는가?

즉 本小考에서는 北傀의 威脅에 호소하던 과거 우리 政府의 威脅의 訴求弘報方法의 效果 分析을 통하여 威脅의 訴求의 效果의 限界성을 考察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既存理論을 檢 討, 確認해 보고자 한다.

C. 研究方法과 制限點

물론 이와 같은 研究問題를 信賴性 있게 考究하기 위해서는 體系的이고 주의깊게 계획된 輿論調査나 서어베이 등의 實證的 研究가 수반되어야 할 줄 안다. 그러나 여러가지 與件上 本小考에서는 事例分析的 研究方法을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既存研究結果들과 理論을 바탕 으로 주어진 研究問題에 대한 解答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本小考에서는 分析批判的 研究方法(the critical method)에 事例 研究方法(case study)과 엑스 포스트 팩토 研究方法(the ex post facto research method)을 加

2) 東亞日報, 1975. 3. 25 (9面).

3) *New York Times*, 1975. 3. 30.

昧시켜서 위에서 서술된 研究問題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威脅의 訴求方法의 效果를 과거의 우리 政府의 對國民弘報의 事例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社會學的 理論에 입각해서 分析評價해 보면서 그 結果(effects)를 보고 逆行的(retrospective)으로 그 原因을 推定해서 왜 威脅의 訴求方法이 效果 보다는 逆效果를 가져 왔는가를 考究해 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本小考는 그 研究問題에 대한 結論導出過程에서 誤謬가 개재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本小考는 어떤 獨立變因(여기서는 威脅의 訴求)이 이미 일어난 경우에 그 獨立變因이 從屬變因(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效果 즉 弘報效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從屬變因만을 관찰해서 이들 두 變因 사이에 存在 가능한 關係性을 찾아보려는 逆行的 研究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獨立變因이 從屬變因의 原因이라고 만드니 斷定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逆行的 研究(the ex post facto research)도 이미 시행되었던 커뮤니케이션方法이 왜 失敗 또는 成功하였던가를 分析評價해서 그 原因을 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理論을 形成하는데 매우 유용한 研究方法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이와 같은 研究로서는 世界 第2次大戰중 Kate Smith의 戰爭公債販賣 캠페인의 效果의 原因 즉 訴求方法을 分析한 Dorwin Cartwright의 研究라든가,⁴⁾ 또는 UNESCO에 대한 弘報方法의 效果를 分析한 Herbert H. Hyman과 Paul B. Sheatsley의 研究 등을⁵⁾ 들 수 있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本小考에서는 과거에 우리 政府에서 실시했던 威脅의 訴求의 弘報方法의 事例를 分析評價해 보기로 하겠다.

II. 本 論

A. 心理學的 側面에서 본 威脅의 訴求의 效果

1. 威脅의 訴求의 概念과 原理

그러면 本小考의 分析對象인 威脅의 訴求方法 즉 國民의 內的 總和團結을 위하여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呼訴하던 과거의 우리 政府의 說得 커뮤니케이션(弘報) 方法의 效果를 論하기에 앞서, 먼저 이와 같은 威脅의 訴求方法의 概念과 原理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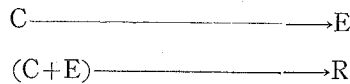
威脅의 訴求(threat appeal 또는 fear appeal)란 文字 그대로 受容者들에게 어떠한 威脅을 느낄만한 事實을 摘示하므로써 커뮤니케이터의 勸告를 받아들여도록 受容者의 메시지 受容態度를 動機化하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考案方法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을 動機化的 訴

4) Dorwin Cartwright, "Some Principles of Mass Persuasion: Selected Findings of Research on the Sale of U.S. War Bonds," *Human Relations*, 2(1959), 253-267.

5) Herbert H. Hyman and Paul B. Sheatsley, "Some Reasons Why Information Campaigns Fail," *Public Opinion Quarterly*, 2(1941), 412-423.

求(motivating appeal)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北俄가 休戰線에 땅굴을 파서 南侵準備를 하고 있다는 事實을 摘示하면서 國民들에게 總和團結을 呼訴함으로써 國民들로 하여금 危機感을 느끼게 해서 國民들의 內的 總和團結과 安保態勢를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곧 威脅的 訴求弘報의 典型的인 例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說得 커뮤니케이션 즉 弘報方法은 古代 希臘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던 手法으로서, 不安으로부터 解放되려는 人間의 心理的 動機를 利用한 것이다. 美國 Yale大學의 저명한 커뮤니케이션學者였던 Carl Hovland에 의하면, 사람들은 威脅的인 커뮤니케이션 內容(content cue)에 접하게 되면 情緒的 緊張(emotional tension)을 일으키게 되며 그 解消方法을 찾게 되는데, 이때 그 緊張感을 해소할 수 있는 代案의 方案을 勸告(reassuring recommendation)하게 되면 그것을 잘 받아 들이는 性向이 있다는 것이다.⁶⁾ 이것이 곧 威脅的 訴求의 原理라고 하겠는데, 그 過程을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威脅的 메시지 內容(C, content cues)을 통하여 人間의 行動의 動機가 되는 受容者의 情緒的 緊張(E, emotional reaction)을 誘發하고, 이 情緒的 緊張을 다시 커뮤니케이터의 代案의 勸告(R, reassuring recommendation)를 받아드리게 하므로써 解消시켜주는 人間의 習慣的 連鎖反應의 原理를 이용한 것이 곧 威脅的 訴求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威脅的 訴求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受容者의 行動變化의 動機가 되는 情緒的 緊張의 誘發(C→E의 段階) 자체와 威脅的 訴求의 內容(C)에 관한 研究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受容者가 그 情緒的 緊張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커뮤니케이터의 代案의 勸告를 받아들이는 그 受容過程(E→R의 段階)에 관한 研究가 되어야 하겠다. 이밖에도 물론 커뮤니케이터 要因(source factors)이라든가 媒體 要因(media factors)들에 대한 研究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2. 威脅的 訴求의 效果에 관한 諸研究結果

(1) 研究結果들의 概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威脅的 訴求方法은 古代 希臘에서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 效果는 常識의 水準에서 막연히 믿어져 내려 왔다. 그러나 이러한 訴求方法의 效果가 實證的으로 考究되고 그 效果의 限界性이 批判되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에 들어와서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威脅的 訴求方法의 效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實驗研究는 1953년에 어빙 재니스와 세이모 웨스마흐(Irving L. Janis and Seymour Feshbach)에 의하여 행

6) Carl I. Hovland, Irving L. Janis and Harold M. Kelley,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3), p. 64.

해졌다.⁷⁾ 그런데 그 당시까지의 일반 常識과는 달리, 이들의 研究에서는 威脅의 訴求方法의 效果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研究結果는 그후 많은 다른 研究들에서도 나타났다. 例컨데, 해프너(D.P. Haefner)⁸⁾, 넌내리와 보브렌(J. Nunnally and H. Bobren)⁹⁾, 제니스와 터윌리저(I.L. Janis and R.F. Terwilliger)¹⁰⁾, 케게레스(S.S. Kegeles)¹¹⁾, 드윌프와 거머네일(A.S. DeWolfe and C.N. Governale)¹²⁾ 및 골드스타인(M. Goldstein)¹³⁾ 등의 研究에서도 威脅의 訴求의 敏果가 거의 없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상의 研究結果들과는 달리 威脅의 訴求와 커뮤니케이션 效果 즉 態度變容과는 正的 關係가 있음이 立證되었다. 例컨데 버코위츠와 커팅함(L. Berkowitz and D.R. Cuttingham),¹⁴⁾ 레벤달과 나일스(H. Leventhal and P. Niles),¹⁵⁾ 나일스(P. Niles),¹⁶⁾ 인스코, 아야코호와 인스코(C.A. Insko, A. Arkoff and V.M. Insko),¹⁷⁾ 레벤달, 싱거와 존스(H. Leventhal, R. Singer and S. Jones),¹⁸⁾ 레벤달과 왓츠(H. Leventhal and J.C. Watts),¹⁹⁾ 등의 研究에서는 威脅의 訴求方法이 效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相反된 研究結果들이 나타난 理由는 무엇인가? 이 問題에 대하여

-
- 7) Irving L. Janis and Seymour Feshbach, "Effects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1953), 78-92.
 - 8) David P. P. Haefner, "Some Effects of Guilt-arousing and Fear-arousing Persuasive Communication on Opinion Chan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1956).
 - 9) J. Nunnally and H. Bobren, "Variables Governing the Willingness to Receive Communications on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27(1959), 38-46.
 - 10) Irving L Janis and Robert F. Terwilliger, "An Experimental Study of Psychological Resistance to Fear-arousing Communic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5(1962), 403-410.
 - 11) S.S. Kegeles, "Some Motives for Seeking Preventative Dental Care," *Journal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67(1363), 110-118.
 - 12) D.S. DeWolfe and C.N. Governale, "Fear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1964), 119-123.
 - 13) Michael J. Goldste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and Avoiding Behavior and Response to Fear-arousing Propaganda,"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1959), 247-252.
 - 14) Leonard Berkowitz and Donald R. Cottingham, "The Interest Value and Relvance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1910), 37-44.
 - 15) Howard Leventhal and P. Niles, "A Field Experiment on Fear-arousing with Data on the Validity of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32(1964), 459-479.
 - 16) P. Niles, "The Relationship of Susceptibility and Anxiety to Acceptance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Yale University, 1964).
 - 17) Chester A. Insko, A. Arkoff and V.M. Insko, "Effects of High and Low Fear-arousing Communication upon Opinions toward Smo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965), 256-266.
 - 18) Howard Leventhal, Robert P. Singer and S. Jones, "Effects of Fear and Specificity of Recommendation upon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965), 20-29.
 - 19) Howard Leventhal and J.C. Watts, "Sources of Resistance to Fear-arousing Communications on Smoking and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967).

윌리엄 맥귀어(William J. McGuire)는 威脅의 訴求의 強度와 그 커뮤니케이션 효과와는 非直線의 關係(nonmonotonic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²⁰⁾, 한편에서는 威脅의 訴求와 그 효과 사이에 第3의 變因들, 例컨대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source credibility)과 같은 커뮤니케이터要因(source factors), 메시지 토픽 등의 메시지要因(message factor), 媒體要因(medium factor) 및 기타의 受容者要因(receiver factors) 등이 作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후 威脅의 訴求와 그 효과사이에 第3의 關係變因들을 개재시켜서 여러가지 實驗研究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가지 關係變因들 중에서 威脅의 訴求方法의 효과에 가장 중요한 相互作用을 미치는 要因으로서는 威脅의 訴求의 強度와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으로 밝혀졌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들 두가지 要因들이 각각 威脅의 訴求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까지의 實驗研究들의 結果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威脅의 訴求의 強度와 그 효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메시지의 威脅의 訴求方法의 효과에 관한 최초의 體系的인 實驗研究는 제니스와 웨스바흐에 의하여 行해졌다고 하겠는데²¹⁾ 이들은 高等學生들을 被驗者로 하여 口腔衛生에 대한 세가지 恐怖水準의 메시지(content cue) 즉 ① 아주 強하게 恐怖感을 자극하는 메시지(strong fear appeal)와 ② 보통으로 威嚇感을 주는 메시지(moderate fear appeal) 및 ③ 약간 威嚇感을 주는 메시지(minimal fear appeal)를 각각 주고 이들 각 메시지에 대한 被驗者들의 憂慮度(emotional tension)와 커뮤니케이터가 제시한 勸告(reassuring recommendation)를 받아드리는 程度 즉 態度變化의 效果를 測定해서 比較해 본 결과,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그때까지의 일반 상식적 생각과는 달리, 強한 威嚇感을 주는 메시지에 접한 被驗者들이 높은 情緒的 緊張感(憂慮度)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緊張感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에 제시된 커뮤니케이터의 代案的 勸告를 받아드리는 程度 즉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오히려 가장 薄弱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常識과 相反되는 實驗結果가 나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거기에는 威脅의 訴求의 효과에 대한 障害要因이 개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제니스와 웨스바흐는 그 중요 障害要因으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指摘하였다.

- ① 強한 威脅의 訴求是 거기에서 오는 지나친 情緒的 緊張 때문에 受容者(被驗者)가 當惑하여 情緒的 混信(emotional interference)을 일으켜서 메시지 內容의 受容을 中斷시킨다.
- ② 強한 威脅의 訴求是 오히려 攻撃的 反應(responsive aggressiveness)을 야기해서 受容者(被驗者)

20) William J. McGuire, "Effectiveness of Fear Appeals in Advertising," Research proposal submitted to the American Advertising Foundation, 1963 및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in E.F. Borgatta and W.W. Lambert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McNally, 1968), p.1139.

21) Janis and Feshbach, 前掲論文.

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拒否하게 만든다.

- ③ 강한 威脅의 訴求는 그에 의하여 야기된 情緒의 緊張感을 受容者(被驗者)들이 커뮤니케이터가 제시한 代案에 의해서도 또는 자신의 代案에 의해서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그대신 防禦의 逃避現象을 일으켜서 後續하는 메시지 內容을 擊退해 버리게 한다.²²⁾

이상과 같은 제니스와 웨스마흐의 實驗結果와 理論은 威脅의 訴求의 效果에 대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고, 또한 이들의 理論은 그후 많은 다른 學者들에 의하여 立證되었다. 例를들어, 데이비드 해프너(David Haefner)도 核武器制限問題를 主題(topic)로 한 實驗研究에서 受容者(被驗者)들이 강한 威脅의 訴求에 대하여 강한 抵抗을 일으키고 있음을 발견하였고,²³⁾ 미카엘 골드스타인(Michael J. Goldstein)도 그의 實驗에서 강한 威脅의 訴求에 대하여 受容者들이 防禦의 逃避現象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⁴⁾

한편 우리나라에서 吳斗凡이 “寄生蟲은 왜 무서운가?”라는 主題로 높은 威脅의 訴求의 메시지와 낮은 水準의 威脅의 訴求의 메시지를 160명의 高等學生들에게 주고 그 效果를 실험 조사한 결과, 威脅의 訴求가 態度變容을 일으키는 要因으로 有意하게 作用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⁵⁾

물론 이상에서 열거한 研究들과는 달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중에는 높은 水準의 威脅의 訴求의 메시지가 낮은 것에 비하여 더 많은 效果를 가져온다는 것을 立證한 實驗研究들도 있으며, 또는 威脅의 程度(水準)에 따른 效果들 사이에서 有意的 差異를 발견하지 못한 研究들도 있다. 따라서 威脅의 訴求의 效果에 대하여 一律의 結論을 맺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研究結果들을 綜合해 볼 때, 한가지 거의 分明한 事實은 윌리엄 맥과이어(William J. McGuire)가 여러 研究結果들을 分析해서 지적한 대로 威脅의 程度가 너무 높아도 逆效果를 가져오며, 그렇다고 너무 낮아도 안되며, 어떤 適正水準(optimal level)을 維持할때에만 威脅의 訴求의 效果는 極大化될 수 있다는 점이다.²⁶⁾ 왜냐하면 맥과이어가 주장한대로 威脅의 訴求의 強度(水準)와 그 커뮤니케이션效果와의 사이에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U字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非直線的 또는 曲線的 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威脅의 訴求에서 威脅의 強度의 適正水準을 무시하고 이 方法을 適用할 때에는 效果 보다는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適正水準은 메시지 托詞의 種類와 受容者의 여러 既存性向(predispositional factors)에 따라 다르게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研究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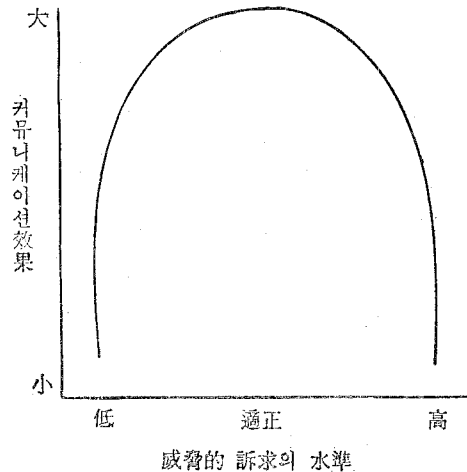
22) 上揭論文, pp. 89-90.

23) Haefner, 前揭論文.

24) Goldstein, 前揭論文.

25) 吳斗凡, “威脅의 커뮤니케이션의 說得效果” 碩士論文(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 1973).

26) McGuire, 前揭論文.



〈그림 1〉 威脅訴求의 水準과 그 效果와의 關係

(3) 威脅的 訴求와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

위에서는 威脅的 訴求에서 威脅의 強度와 그 效果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結果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밖에도 威脅的 訴求方法의 效果에 영향을 미치는 第3의 變因(intervening variable)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source credibility)이 중요한 作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公信力이란 아다시피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受容者의 이미지(image) 또는 態度(attitude toward communicator)로서 커뮤니케이션 效果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source factor)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效果는 증가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公信力은 威脅的 訴求의 強度(level of fear appeal)와 相互作用(interact)을 하고 있다는 것이 머레이 휴길과 제랄드 밀러(Murray A. Hewgell and Gerald R. Miller)의 研究 등에서²⁷⁾ 발견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휴길과 밀러는 “公信力(source credibility)이 威脅的 訴求의 效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研究問題에 대하여 “만약 受容者들이 커뮤니케이터가 높은 公信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커뮤니케이터의 강한 威脅的 訴求는 弱한 것보다 受容者의 態度를 더 많이 變容시킬 것이다”라는 假說을 세우고 이를 實驗方法을 사용하여 檢證하였다. 즉 美國 미시간州 흐린트(Flint, Michigan)에 있는 한 國民學校의 學父兄會(PTA)에 나온 90명의 成人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하나의 統制集團과 네개의 實驗集團 즉 ① 높은 公信力에 강한 水準의 威脅的 訴求集團(High credibility, High fear), ② 낮

27) Murray A. Hewgill and Gerold R. Miller, “Source Credibility and Response to Fear-arousing Communications,” *Speech Monographs*, 32(1965), 95-101.

은 公信力에 강한 水準의 威脅의 訴求集團(Low credibility, High fear), ③ 높은 公信力에 낮은 水準의 威脅의 訴求集團(High credibility, Low fear) 및 ④ 낮은 公信力에 낮은 威脅의 訴求集團(Low credibility, Low fear)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각 集團에 核放射能待避壕를 主題로 한 實驗處置를 加한후, 이들 각 集團의 被驗者들의 態度變容의 정도를 7段階의 直線的 等間尺度(a seven-interval linear scale)로 測定해서 이들은 統制集團의 그것과 比較해서 統計的 檢證(the 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해 보았더니 오직 셋째와 넷째번의 높은 公信力에 낮은 水準의 威脅의 訴求集團 및 높은 公信力에 높은 水準의 威脅의 訴求集團만이 0.05水準에서 有意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實驗研究의 結果는 이들(Miller and Hewgill)의 다른 研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²⁸⁾ 따라서 이들 研究結果를 따라붙어 볼때, 公信力이 낮은 커뮤니케이터의 강한 威脅의 訴求는 效果가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威脅의 訴求의 效果는 커뮤니케이션의 公信力이 높을 때만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물론 이상에서 살펴 본 威脅의 訴求의 強弱의 水準과 公信力과의 相互作用에 관한 問題는 앞으로 더 研究되어야 할줄 아나, 대체로 威脅의 訴求의 適正水準(optimal level)을 無視했거나 公信力이 낮은 커뮤니케이터가 강한 威脅의 訴求方法은 사용할 때에는 效果보다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3. 北傀의 威脅에 대한 對民弘報의 效果分析

그러면 다시 앞에서 提起한 本小考의 研究問題로 돌아가서 위에서 살펴본 威脅의 訴求의 效果에 대한 研究結果들을 바탕으로 우리 政府가 과거에 즐겨 사용하던 北傀의 威脅에 호소하던 對民弘報의 效果를 分析評價해 보기로 하겠다.

實證的으로 그 弘報效果를 測定分析해 보지 못해서 이렇다할 結論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呼訴하여 國民의 內的 總和團結을 이룩하려던 政府의 威脅의 訴求의 弘報戰略은 많은 效果를 얻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序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逆效果를 가져온 것도 事實이라고 하겠다.

첫째, 北傀의 威脅에 의존한 對國民弘報方法의 빈번한 過用은 政府의 公信力을 떨어뜨렸다고 하겠다. 北傀의 威脅이 常存하고 있으며, 北傀가 언제 挑發行爲를 해 올지 모르는 것은 事實로서 우리가 當面한 現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만을 너무 빈번히 強調한 나머지 그것은 마치 이솝의 寓話에 나오는 “羊치는 牧童과 늑대 이야기”처럼 國民들이 오히려 政府의 警告를 不信하는 風潮를 낳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公信力이 추락된 政府가 강한 威脅의 訴求方法을 구사하는 對民弘報는 그 效果를 저해하는 結果가 되었다고 앞에서 살펴본 커뮤니케이션理論에 입각하여 結論을 내릴 수 있겠다. 즉 앞의 휴길과 밀러의 實驗結果

28) Gerlald R. Miller and Murray A. Hewgill, "Some Recent Research on Fear-arousing Message Appeals," *Speech Monographs*, 33(1966), 377.

에서 보듯이 公信力이 낮은 政府가 강한 威脅의 訴求方法을 사용하므로써 效果 보다는 오히려 序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逆效果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둘째로, 政府의 威脅의 訴求의 弘報方法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威脅의 程度가 너무 強硬하고 그 代案的 勸告가 명료하지 않아서 많은 國民들을 不安感이나 恐怖意識 속으로만 몰아 넣어 그 結果 北傀의 威脅에는 對備하려고 하지 않고 “政府가 北傀의 威脅을 강조하는 것은 政權延長을 위한 핑계”라느니 또는 “北傀의 威脅은 없다”느니 하여, 北傀의 威脅을 過少評價하므로써 直面한 危險을 外面하려는 心理的 逃避現象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逃避現象이 惹起된 理由는 前項의 제니스와 웨스마흐의 理論에서 본 바와 一致된다고 하겠다.²⁹⁾ 즉 威脅의 訴求의 強度가 그 適正水準을 넘어 섰기 때문에 國民들이 心理的 逃避現象을 일으켜서 北傀의 威脅에 對備하여 總和團結을 하지는 말을 拒否하거나 一笑에 붙이는 傾向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셋째로, 政府의 威脅의 訴求弘報는 效果는 고사하고 나아가서는 逆效果까지를 유발해서 威脅의 訴求에 의하여 造成된 戰爭恐怖症이 國民들을 敗北意識에까지 짓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만약 北傀가 南侵을 한다면 對抗해서 擊退시키겠다는 각오 보다는 逃走하겠다는 傾向을 가져오기까지 하였다. 그 卑近한 例가 바로 國外로의 競爭的 移民現象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실마 北傀가 南侵을 하겠느냐,” “北傀가 南侵하면 꿈쩍없이 죽는다”든가, “北傀와는 武力面으로나 精神面으로나 對敵할 수 없다”느니, 또는 “北傀가 南侵해도 서울만을 死守하자”느니 式의 一部 政治指導者들의 소극적 태도와 國民들의 생각도 곧 敗北意識의 極端的인 一例로서 無分別하고 強硬一邊倒의 威脅의 訴求弘報가 가져온 逆效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일부 國民들 사이에 官能的 快樂을 追求하는 傾向마저 풍미한 것도 強硬 威脅의 訴求의 弘報에 의하여 야기된 戰爭에 대한 不安으로부터 逃避하기 위한 수단 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도 과거에 政府의 北傀에 대한 威脅의 弘報方法의 逆效果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볼 때, 政府가 과거에 國民의 內的 總和團結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呼訴하던 威脅의 訴求의 對國民弘報戰略은 그때 그때 短期的인 效果는 거두었을지 모를 망정, 長期的인 眼目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威脅의 訴求方法이 모두 非效果의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技術의 面에서 活用이 잘못되었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方法의 效果에 대한 研究結果나 理論에서 살펴 보았듯이, 政府의 公信力이 높았고 그 威脅의 訴求의 弘報方法이 適正水準內에서 善用되었었다면 그것은 國民의 內的 總和團結에 큰 效果를 발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29) Janis and Feshbach, 前揭論文.

B. 社會構造上에서 본 威脅의 訴求의 效果

1. 外的 威脅과 內的 結束과의 相關關係

앞에서는 커뮤니케이션 心理學的 立場에서, 과거의 威脅의 訴求에 의한 우리나라 政府의 對國民弘報가 國民들의 心理에 어떠한 影響 또는 效果를 가져왔는가를 살펴 봄으로서, 序頭에서 제기한 研究問題에 대한 解答을 얻어 보려고 하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次元을 달리해서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呼訴하던 威脅의 訴求의 效果와 그것이 우리 社會 자체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었던가를 社會構造論的 立場에서 分析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人間社會의 모든 現象은 個人的이고 心理的인 次元과 集團의 이고 社會的인 次元에서 考察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外部集團으로부터의 軍事的 威脅이나 또는 外部集團과의 葛藤이 한 集團의 內的 結束(internal cohesion)을 가져온다는 學說은 일찌기 獨逸의 著名한 社會學者인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에 의하여 主張된 바 있다.³⁰⁾ 그러나 한편 짐멜은 外部勢力的 威脅이 한 集團內部的 갈등을 없애고 內的 結束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完전한 社會的 解體 現象(anomie)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附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外部의 威脅이 만드서 內的 結束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짐멜의 理論은 최근 에 와서 루이스 코저(Lewis Coser)에 의하여 다시 자세히 研究되어 立證되었다고 하겠다³¹⁾ 즉 코저는 社會構造論的 立場에서, “基本的 價値觀이 確立되고 社會的 構造가 인정되어 있을 때에만 外部의 軍事的 威脅이나 그것에 對處하기 위한 戰時體制가 한 社會集團 內部的 結束을 強化한다.”³²⁾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저는 그 實例로서 世界第1次大戰중의 英國社會의 경우를 들고 있다. 이것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著書에서도³³⁾ 볼 수 있는 事實로서, 戰爭이 입박하자 英國社會는 外部의 威脅에 對항하기 위해서 놀랄만한 內部 結束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對로 社會的 構造가 不定한 社會集團이나 國家에서는 外部의 威脅이 內的 結束보다는 오히려 社會的 “아노미” 現象(anomie)을 誘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⁴⁾ 여기서 “아노미” 現象이란 아다시피 集團成員間的 機能的 關係가 崩壞되어 集團의 目的 遂行이 저해되고 社會의 各種 要素가 調和的으로 作用하지 못하는 社會解體 現象을 말한다. 어떻든, 이에 대한 實例는 世界第2次大戰 당시의 프랑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30) Georg Simmel, *Conflict*, translated by Kurt H. Wolff (Glencoe: The Free Press, 1953), pp. 87-88, 92-93.

31)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pp. 87-110.

32) 上揭書, p. 90.

33) Winston Churchill, *The World Crises, Vol. IV: The Aftermath* (London: Buter Worth, 1928).

34) Coser, 前揭書, p. 90.

나치의 軍事的 威脅에 대응하여 英國에서는 모든 政治的, 社會的 및 經濟的 內部的 葛藤을 잠정적으로나마 극복하면서 內的 結束을 이룩하여 나치에 對抗한데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內的 葛藤이 深化되어 結束은 커녕, 심지어는 “프랑스가 하나의 獨立된 國家로서 存在할 필요가 있느냐?”는 反問까지 國民들 사이에서 論議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와 같은 事實은 곧 社會的 構造가 外的 威脅과 內的 結束과의 關係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例라고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內的 結束(總和)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外的 威脅보다도 內的인 集團的 合議(group consensus)라고 하겠다. 基本的인 集團的 合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外的 威脅은 오히려 政治的 無關心과 冷淡感(apathy)을 造成하고, 나아가서는 分裂(disintegration)을 가져올 憂慮가 있다고 코저는 主張하고 있다³⁵⁾. 코저는 이에 대한 비근한 例로서 로버트 머어튼(Robert Merton)의 家族集團에 대한 研究結果를 제시하고 있는데 融和가 잘된 家庭은 經濟恐慌에 봉착하였을 때 힘을 뭉쳐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 반하여 그렇지 못한 家庭은 서로 責任을 轉嫁시키면서 결국에는 破綻에 도달하여 離散을 하고 말더라는 것이다.³⁶⁾

따라서 한 集團의 모든 成員이 外部的 威脅을 威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對備하고 對抗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過小評價하면서 非現實的인 것으로 받아드리면서 無視하느냐에 따라서 그 集團의 內的 結束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고 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로빈 윌리엄스(Robin Williams)가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그는 外的 威脅이 內的 結束을 가져오기 위한 必須條件으로서 다음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 즉 첫째, 社會成員들 사이에 外部 威脅의 存在에 대하여 최소한의 合致가 이루어져야 하면, 둘째 그러한 外的 威脅이 어떤 少數의 集團에 대한 것이 아니라 國民 전체의 利害에 直結된 것으로 實感될 때에만 內的 結束이 強化된다는 것이다.³⁷⁾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저에 의하면 단순한 外的 威脅의 부각은 오히려 集團內部에 새로운 反對勢力(sect)의 出現을 助張하거나 또는 反對勢力들의 結束을 가져오는 結果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歷史的 實例로는 러시아의 볼셰비키黨(Bolshevik Party)의 出現 過程이나, 英國의 퓨리탄이즘(English Puritanism)의 結束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韓國社會의 構造와 威脅的 訴求弘報의 效果分析

35) 上揭書, pp.92-93.

36) Robert K. Merton의 Restudy of Angell's "The Family Encounters the Depression": *A Reanalysis of Documents Bearing on the Family Encounting the Depression*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2)

37) Robin M. Williams, Jr., "Reduction of Intergroup Tension,"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ulletin*, No. 57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7)

38) Coser, 前揭書, p. 90.

이상에서는 주로 짐멜과 코저의 理論을 중심으로 外的 威脅과 內的 結束과의 相關關係를 社會構造와 관련시켜서 살펴보았다. 그리면 本小考에서 제기한 研究問題로 돌아가서 北傀의 威脅에 호소하던 과거의 우리 政府의 對國民弘報方法이 과연 우리 社會의 內的 結束 즉 國民總和를 가져왔던가를 社會構造의 立場에서 分析, 評價해 보기로 하겠다.

이 問題를 앞서 살펴 본 짐멜과 코저의 理論을 바탕으로 分析, 評價해 보려면, 먼저 “韓國 社會가 安定된 構造의 社會나, 아니면 不安定된 社會構造를 갖고 있었느냐?”하는 前提條件부터 論議되어야 할 줄 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不正腐敗, 貧富隔差의 深化現象, 不信思潮의 澎湃, 價値體系에 대한 葛藤現象, 國民意識의 缺如, 小市民들의 政治에 대한 無關心, 痼疾의 이던 學園事態 등을 미루어 볼 때, 과거의 韓國 社會는 결코 安定된 社會의 構造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斷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北傀의 軍事的 威脅이 우리 社會의 內的 結束을 가져왔었다고 말할 수 없겠다.

과거에 政府가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 대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國民들에게 強調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國民總和가 이룩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社會가 과거에 不安定한 社會構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極히 少數라고는 하겠지만, 과거에 一部 野黨勢力은 北傀의 威脅에 대한 政府의 對國民弘報가 現政權의 延長手段이라고 말하면서 反對勢力을 규합한 事例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有事時에 現政府와 合力하여 敵에 대항 하리라고는 斷定할 수 없으며, 오히려 敵의 侵攻을 받게 되면 그 罪는 오로지 現政府에 責任이 있다고 몰아세울지도 모르는 사태에까지 갔었다. 이와 같은 推論은 가까운 越南事態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다. 즉 메트콩의 侵攻을 받았을 때, 越南의 일부 反對勢力들은 團結을 하지 않고 티우政權부터 물러가라고 內紛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要約해서, 北傀의 威脅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우리 政府의 威脅의 訴求의 弘報方法은 과거의 우리 社會가 安定된 社會構造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國民의 內的 結束을 가져오는 커뮤니케이션 效果가 없었다고 하겠다. 그반대로 오히려 威脅의 訴求의 弘報는 國民들로 하여금 戰爭恐怖症을 유발하여 더욱 社會的 不安定을 조장하는 逆效果를 가져왔다고 보겠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北傀의 威脅에 대처하여 內的 結束을 하려하지 않고 北傀의 軍事的 威脅을 회피하는 한 방법으로서 海外移民의 風潮까지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實存하고 있는 北傀의 威脅을 國民들에게 周知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과거에 우리 政府가 당면했던 디렐마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다행히 社會가 安定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初戰撲殺이라는 새로운 弘報口號가 나오므로써 지금은 國民의 總和가 이루어지고 國民들이 戰爭恐怖症 대신에 自信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상에서 보듯이, 威脅의 訴求의 커뮤니케이션(弘報) 方法은 社會構造上에서 볼 때, 受

容者들이 치해 있는 社會가 構造的으로 安定되어 있을 때만 그 效果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威脅의 訴求의 效果는 社會構造的 要因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하겠다. 이것이 곧 威脅의 訴求方法의 效果의 한계성이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 方法은 社會構造的 要因을 고려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Ⅲ. 結 論

A. 研究結果의 要約 및 結論

序論에서 언급하였듯이, 本小考는 과거에 우리 政府에서 國民의 內的 總和團結을 이룩하기 위한 한 弘報手段으로서 北傀의 威脅에 呼訴하던 소위 威脅의 訴求의 弘報方法(fear appeal)의 效果를 分析評價해보고 그 弘報方法이 왜 失敗 또는 成功했는가의 原因을 규명함으로써 威脅의 訴求效果의 限界性은 檢討考察해 보려고 하였다. 本小考에서 위와 같은 威脅의 訴求弘報의 事例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學 및 社會構造論的 立場에서 分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과거 우리 政府의 威脅의 對國民弘報方法은 대체로 기대했던 만큼의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本考 序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가지 逆效果를 초래해 왔다고 볼 수 있었다.

(1) 첫째,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여러 研究結果와 理論에 비추어 볼 때.

① 北傀의 威脅에 호소하였던 우리 政府의 對國民 總和弘報에서의 威脅의 訴求(feel appeal)는 너무 強硬(適正水準을 초과)한데 반하여 그 代案의 勸告는 명확하지 않아, 많은 國民들로 하여금 戰爭恐怖症 또는 不安感만을 유발하여, 그 結果 心理의 防禦 및 逃避現象을 일으켜서 北傀의 軍事的 威脅에는 對備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外面과 否定 및 現實逃避로서 야기된 恐怖感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政府의 弘報效果가 저해 되었으며,

② 또한 威脅의 訴求弘報의 너무 빈번한 過用이 政府(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credibility)을 떨어뜨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威脅의 訴求의 效果를 방해하게 되었다.

(2) 한편 社會構造的 次元에서 政府의 威脅의 訴求弘報方法의 事例를 分析해 볼 때, 과거 우리 社會의 不安定要因이 北傀의 威脅에 대한 內的 結束의 조성을 저해하여, 北傀의 威脅을 수단으로 하였던 對民弘報가 그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社會의 아노미(anomie) 現象을 초래하여 더욱 社會의 不安定만을 조장하는 逆效果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이상과 같은 과거 우리 政府의 威脅의 訴求의 弘報(커뮤니케이션) 方法의 事例를 分析해 볼 때, 威脅의 訴求方法의 效果에는 限界性이 있다고 하겠으며, 威脅의 訴求弘報는 그 威脅의 內容의 強度가 適正水準을 유지하며, 그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이 높으며, 또한 社會의 構造가 安定되어 있을 때만 效果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威脅의 訴求의 效果에 대한 本小考의 研究結果는 앞에서 언급한 제

니스와 웨스바흐³⁹⁾, 휴길과 밀러⁴⁰⁾ 및 코저⁴¹⁾의 研究結果나 理論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B. 他研究와 弘報政策을 위한 提言

그러나 위와 같은 本小考의 研究結果는 既存研究結果나 理論을 바탕으로 導出된 것으로서 그 信賴性에는 制限點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研究에서는 實證的 研究方法을 사용하여 本小考의 研究問題를 고찰해 보기 바란다. 또한 本小考에서는 威脅의 訴求方法의 効果에 作用을 하는 關係變因으로서 威脅의 訴求의 強度와 그 커뮤니케이터의 公信力 및 社會的 構造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밖에도 여러 變因들이 威脅의 訴求의 効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다른 研究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要因들을 포함시켜서 分析해 보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實際 弘報政策에 대하여 한마디 곁들이고 싶은 것은, 보다 効果的인 弘報政策을 수행하려면 우선 弘報方法의 科學化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弘報行政의 科學化를 부르짖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弘報政策은 常識的인 次元에서 立案되어 實施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따라서 試行錯誤가 되풀이 되고, 長期的 弘報政策이 결여되어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弘報)의 皮下注射式 模型(hypodermic needle model)에 집착하여, 國民들에게 強한 刺戟만 주면 弘報者가 의도한대로 受容者들이 反應을 해주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受容者들은 被動的이고 無抵抗的인 存在가 아니다. 그반대로 受容者들은 能動的인 存在로서 어떠한 弘報刺戟을 받으면 內的 既存要因(predispositional factors)에 따라 어떤 刺戟은 거부하며,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그들을 知覺, 解釋해서 反應을 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實例가 本小考에서 고찰한 威脅의 訴求弘報가 의도했던대로의 效果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라고 하겠다. 물론 완전무결한 弘報方法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다 効果的인 弘報政策을 수행하고 逆效果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弘報의 科學化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는다. 여기서 科學化란 常識的 次元에서 벗어나서 弘報理論(communication theory)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지적했듯이, “常識이란 가장 나쁜 스승으로서 科學의 敵”⁴²⁾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弘報政策도 常識的 次元을 벗어나서 科學的 知識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한, 效果的인 弘報를 할 수 없다고 믿는다.

39) Janis and Feshbach, 前掲論文.

40) Hewgill and Miller, 前掲論文.

41) Coser, 前掲書.

42) A. Whitehead,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11), p. 157.